

214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81) 폴리염화비닐로 코팅된 청바지

□ 폴리염화비닐로 코팅된 청바지

해설)

- 드라이클리닝 가능으로 표시된 프랑스 유명 상표의 청바지를 드라이클리닝 했는데 전체가 경화되고 천이 얼룩덜룩해짐. 이 제품은 청바지 품의 바지로 표면이 광택이 있는 수지로 코팅되어 있었으며, 취급표시에는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음.



- 사고 상태를 관찰하면 수지가 경화해서 특히 봉제부분의 천이 겹쳐 두꺼워진 부분, 뒷무릎 등의 착용 시에 굴곡이 발생하는 부분, 엉덩이 등 마찰이 발생되기 쉬운 부분 등에서 피막모양의 필름이 벗겨지고 희끗희끗한 반점이 나타남.

- 이 사고는 피막의 소재는 폴리염화비닐일 가능성이 크며, 폴리염화비닐은 본래 딱딱한 소재이며, 이것을 섬유제품에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는 가소제(프탈산다이옥틸 등)를 용제로 침투시켜 사용하는데, 이것이 드라이클리닝에 의해서 가소제가 녹아 나와 경화를 일으켜 나타난 사고임.
- 이 제품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드라이클리닝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드라이클리닝 불가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